

오순절 후 세 번째 / 아버지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3RD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0년 6월 21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Hymn	17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새195)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25 번 시편 (Psalm) 103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권영수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베드로전서 (1 Peter) 4:7-16	윤홍준 집사
설 교 Sermon	“성령 안에서의 사역” (The Ministry Led by the Holy Spirit)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특송: 고영인, 고혜정, 김건희, 김미경, 임소영, 조희연)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359 장 “예수가 함께 계시나” (새325)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지만,

우리는 마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겼고,
보이는 것에 더 치중하여 거짓과 위선된 행동을 보였으며,
사람에게 드러나고 인정받는 것에 집중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더 이상은 얽매이기 쉬운 죄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거짓과 위선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죄악과 미움과 갈등이 만연한 세상에서도,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벧전 4:11, 미 6:8)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한글개역 **벧전 4:10**)

“Each one should use whatever gift he has received to serve others, faithfully administering God's grace in its various forms.” (NIV **1 Peter 4:10**)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6/21 (주일)	6/22 (월)	6/23 (화)	6/24 (수)	6/25 (목)	6/26 (금)	6/27 (토)
본문	신27:1-28:19 시119:1-24	신28:20-68 시119:25-48	신29 시119:49-72	신30 시119:73-96	신31 시119:97-120	신32 시119:121-144	신33,34 시119:145-176
	사54 마2	사55 마3	사56 마4	사57 마5	사58 마6	사59 마7	사60 마8

수/요/ 성/경/공/부

수요 성경공부(6/24수 오후7:30)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리라” (민 17:1-11)

지난 주일(6/14) 말씀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삶”(갈 5:13-26)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진정 무엇이 선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며?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를 전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저절로 우리가 선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좇아 행하라”(갈5:16)고 권면하는데, “성령을 좇아 행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지금도 지속적으로 성령님을 사모하라는 의미이며, 또한 지금도 지속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좇아 행할 때(즉,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과 삶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1)첫째, (우리가 성령을 좇아 행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머물지 않게 되며 (갈5:18), 2)둘째, (우리가 성령을 좇아 행할 때)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며(갈5:22-23), 3)셋째, (우리가 성령을 좇아 행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살며 또한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갈5:25-26).

비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로 인해 다툼이 끊이지 않고, 순리를 따르지 않으려는 사람들로 인해 고통이 지속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분명)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자로 부름 받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리를 따르는 자로 부름 받았음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다툼과 갈등과 시기와 비난이 난무한 세상에서도, 성령을 좇아 행함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